

‘서른이지만...’, 청정엔딩에도 2% 아쉬운 종영



SBS 월화극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가 종영했다. 18일 방송된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에서는 서리(신혜선) 우진(양세종) 찬(안효섭) 제니퍼(예지원) 등 시간의 굴레에 갇혀있던 모

든 등장인물들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명언처럼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따뜻한 여운을 남겼다. 특히 '핑크커피'이 깊은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행복의 문을 여는 모습은 잔잔한 여운을

남기는 해피엔딩이었다. 이처럼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는 인생드라마'라는 극찬 속에 막을 내렸다. 마지막회 시청률은 11%(닐스코리아, 전국기준). 이로써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는 월화

‘인생드라마’라는 극찬 속에 막 내리

극 1위로 유종의 미를 남겼다.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가 흔들림 없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조성희 작가의 탄탄한 대본 덕분이다.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에는 악역도, 사랑의 휘방꾼도, 진한 애정신도 없었다. 자극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극 초중반 인물들의 감정선과 서사, 클라이맥스를 위한 복선을 촘촘히 깔아둔 덕분에 갈수록 감정이 고조되는 크레센도 전개가 가능했다. 주인공들의 로맨스가 불고, 본격적인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과정이 지나치게 늘어지는 감이 있던 했지만 조성희 작가 특유의 유머 감각과 매력적인 캐릭터 플래이까지 더해져 지루할 틈 없는 무결점 청정 로맨스가 탄생할 수 있었다. 여기에 '너의 목소리가 들려' '피노키오' 등을 히트시킨 조수원 배우들의 열연도 빼놓을 수 없는 인기 비결이다. 신혜선은 열일곱에

코마에 빠져 서른 살에 깨어난 멘탈 피지컬 부조화녀 우서리로 완벽 변신했다. 그는 진짜 17세처럼 보인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전진남(박찬) 매력을 뽐내며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양세종과의 로맨스가 본격화된 뒤에는 빠져들 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여성팬들의 마음까지 흔들었다. '황금빛 내 인생'에 이어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까지 흥행에 성공하며 연기력을 갖춘 '홍행보증수표'로 입지를 공고히 한 것이다. 신혜선과 호흡을 맞춘 양세종은 세상차남 공우진으로 분했다. 다만 양세종의 연기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불만을 표출 필요가 있다.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세상에 발을 내딛는 서른 살 남자의 변화 과정을 그려내는 과정은 다소 매끄럽지 못했다. 신혜선과의 로맨스에서 이제준 눈빛연기는 좋았지만, 사실 '사랑의 온도'에서 서현진과 보여줬던 연기와 큰 차이를 찾기도 어려웠다.

신혜선 서현진이 주도적으로 극을 이끌고 서포트하는 정도에 그치며 남자 주인공으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민첫사랑 키크'이란 타이틀에 있어 어느 쪽의 지분이 컸는지 스스로 풀이해야 한다. 하지만 다정하고 건장키 남치는 외사상을 애진하게 그려낸 '서브영 유발자' 안효섭, 중독성 있는 로망 말투와 능청스러운 연기까지 자유자재로 소화해낸 '신스틸러' 예지원을 필두로 박시은 윤찬영 조현식 이도현 정유진 안승균 윤신우 왕지원 조유정 이승준 심이영 이아영까지 아역부터 성인연기까지 인생 연기를 펼쳐며 극을 채워준 덕분에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는 따뜻한 웃음이 가득한 힐링 드라마로 인지도 수 있었다. 이렇게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는 2%의 아쉬움과 98%의 만족도를 남긴 채 막을 내렸다.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후속으로는 이제준 눈빛연기는 좋았지만, 사실 '사랑의 온도'에서 서현진과 보여줬던 연기와 큰 차이를 찾기도 어려웠다.

현빈과 주지훈의 이미지 파괴본능...작품 속 충격 변신



이쯤되면 이미지 파괴 수준이다. 반듯하고 환한 이미지의 '꽃미남 배우'로 인식되는 현빈과 주지훈은 최근 각각의 작품에서 충격적인 변신을 했다. 물론 이들의 필모그래피만 봐도 전형적인 틀을 벗어나 다양한 장르, 캐릭터를 추구해왔음을 엿보게 하지만 '인질범'과 '살인마'라는 극단적인 이미지 변신은 가히 놀랍다. 현빈은 영화 '협상'에서 사상 최악의 인질극을 벌이는 국제 범죄 조직의 무기 밀매업자 민태구로 분했다. 늘 반듯하고 정갈한 이미지가 강했던 현빈은 이번 영화에서 흐트러진 머리와 풀어헤친 셔츠 차림으로 지저분하고 거친 외양을 보여준다. 또한 인질극을 벌이는 음습한 지하 공간에서 인질을 잡고 "10분에 한 명씩 죽이겠다"며 웃으며 여유를 부리는 사악하고 냉정한 모습이 섬뜩함을 자아낸다. 협상가를 대할때의 말투도 나른하게 툭툭 던지는 방식을 취하거나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녀석을 따는 등 우위를 점한 지의 행동을 보인다. 특히 공포감을 조성하고 혼자 이득을 웃는다거나, 협상가에 성희롱 발언을 내뱉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불가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벌인다. 게다가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살인을 저지르는 끔찍하고 극단적인 모습으로 살벌함을 자아내는 현빈이다. 극이 전개될수록 인물이 가진 숨겨진 서사가 드러나며 연민을 자아내게 하는 지점도 현빈의 섬세한 감정 연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빈은 거침없는 인물의 반전 면모를 발산하며 생애 첫 악역 도전을 성공리에 마쳤다. 주지훈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함수살인' (감독 김태균·제작 필름295)에서 살인마 강태오로 분했다. 강태오는 살인 혐의로 수감된 감옥에서 형사에 추가 살인을 자백하며 심리전을 펼치는 지능형 살인마다.

주지훈은 자신의 암수범죄(파헤치는 있지만 신고도 시체도 수사도 없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살인 사건) 사실을 영웅담 얘기하듯 떠벌리며 형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제 입맛대로 조종하는 치 떨리는 뻘뻘함을 보인다. 마치 게임을 즐기듯 형사에 암수살인 단서를 미끼로 갖가지 요구사항을 하고, 오락가락한 진술로 수사를 혼선에 빠뜨린다. 그러다기도 불리한 상황에 풀리거나 불안과 초조감을 느낄 땐 순간 돌변해 적한 살의를 내뿜는다. 자신의 감정 분출을 위해 끔찍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사소한 일에도 공격적 성향을 드러내지만 사이코패스란 진단마저도 어려운 감정 불가의 캐릭터다. 이를 이토록 실감나게 입체적으로 표현한 주지훈이다. 주지훈은 실감나는 사투리 연기를 위해 두 달간 연습에 매진했고, 현장에서 돌 사투리를 연습했다. 더욱 놀라운 건 식발 헤어스타일에 푸른 죄수복을 입고 감옥 접견실을 어슬렁 거리는 걸음만으로도 극단적인 인격장애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주지훈은 이 걸음걸이조차 직접 연구하고, 말을 할 때 고개의 각도까지 치밀하게 계산하며 '감정 불가' 범죄자의 심리를 소름 끼치게 포착해냈다. 앞서 천연덕스럽고 장난기 많은 모습과 묵직한 진중함을 오가며 천년의 세월을 거스른 '신과함께' 시리즈의 저승차사 해원때부터, 날카롭고 냉정하면서도 외위의 행동들로 코마함을 준 '공작' 속 북한 간부 정무태까지. 경계없이 양극단을 오가며 물오른 연기력을 보여준 주지훈이 또다시 극한까지 치달은 살인마로 연기 영역을 넓힌 셈이다.

엠버, 자작곡 '화이트 노이즈' · '로스트 앳 시' 발표



그녀 f(x) 엠버의 새로운 자작곡이 깜짝 공개된다. 엠버는 9월 21일 0시 멜론, 지니, 아이튠즈,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샤미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새 싱글 'WHITE NOISE + LOST

AT SEA'(화이트 노이즈 + 로스트 앳 시)를 공개. 이번 싱글에는 타이틀 곡 'White Noise'와 'Lost At Sea' 등 엠버가 직접 작사, 작곡한 신곡 2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2곡 모두 영어 가사로 이루어진 만큼, 글로벌 음악 팬들의 더욱 뜨거운 반응이 기대된다. 이번 타이틀 곡 'White Noise'는 몽환적인 사운드와 부드러운 멜로디가 어우러진 일렉트로닉 팝 곡으로, 가사에는 진정한 '집'의 의미를 찾는 내용을 담았으며,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희망적인 분위기의 곡인 만큼, 엠버의 힐링 감성을 만나기에 충분하다. 더불어 수록곡 'Lost At Sea'는

현란한 플렉싱 신스 사운드의 드럼이 중독성 있는 딥 하우스 기반의 팝 곡으로, 연애 중 느끼는 연인에 대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린 듯하다 (Baby, we're so lost a sea)고 표현한 포인트 가사가 매력적이다. 한편, 엠버는 f(x) 활동은 물론, 2015년 첫 미니앨범 'Beautiful'(뷰티풀)을 통해 솔로 가수로서 새로운 면모를 입증했으며, 'GOODBYE SUMMER'(굿 바이 서머), 'SUMMER LOVE'(서머 러브), 'Borders'(보더스), 'On My Own'(온 마이 온), 'Need To Feed Needed'(니드 투 필 니디드) 등 다수의 자작곡을 발표해 음악적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고작 66만... '물괴'의 초라한 퇴장



추석대전 빅4의 첫 주자 '물괴'보다 한 주 앞선 12일 개봉했지만,

가 쓸쓸한 퇴장을 앞둔 가운데 '명량'·'안시성'·'협상'이 합세해 치열한 전쟁을 벌인다. 19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물괴' (감독 허준호·제작 태원엔터테인먼트)는 18일까지 누적관객 66만 여명에 머물며 고전 중이다. 총제작비 125억원이 투입된 대형 액션사극으로 손이분점이 300만 명 선이지만 추석이 오기도 전에 사실상 퇴장 수순을 밟고 있다. '명량' '협상' '안시성'보다 한 주 앞선 12일 개봉했지만,

관객들의 냉담한 반응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신작 공개와 함께 예매율은 10위(영화진흥위원회)로 추락했다. 향후 스크린 확보도 난항이 예상된다. '사극과 크리처 괴물' 장르를 섞은 기발한 시도로 주목받았지만 베일이 벗겨진 뒤 관객의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키진 못했다. 결국 초라한 성적으로 퇴장 차트 아웃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한편, '안시성' (김광석 감독)은 예매율 1위를 차지하며 치열한 추석 극장가 대전의 우위를 선점했다. 동아시아 전쟁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승리로 전해지는 88일 간의 안시성 전투를 그린 영화. 그동안 충무로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고구려 승리의 역사를 되살려 냈다.

오늘의 순세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음력 8월 11일)



▶**소띠** 서로 깊이 사랑한다지만, 불과 한길밖에 안 되는데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랑 속마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질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배려하라. 3, 5, 6월생 목심부리다 명예훼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사띠** 남의 것 챙겨주다가 내 것 잃는 줄 모른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봉사 정신도 좋지만, 내 것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새로운 터전에 도전하는 날이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말고, 성실히 뜻을 지켜가면 저절로 운이 열리겠다.



▶**황소띠** 좋은 일을 하고도 공적사를 하니 덕이 없다. 친구 간 금전 거래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책임질 우려가 있다. 애정 문제로 사적인 일에 끼어들면 관계수가 염려된다. 언행을 조심하라. 사, 오, 모 성씨 조연을 받아들이면 힘이 되겠다.



▶**진띠**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 따뜻한 정이 흐르는 것이 더 큰 행복이 된다. 부부의 정이 두터워지면 부는 저절로 쌓인다. 1, 3, 5월생은 금전이 융통돼 추진하는 일이 길하겠다. 7, 8, 9월생 노란색을 피하라. 약해 보인다.



▶**용띠** 예기치 않던 걱정거리가 생길까 염려되니 조심성 있게 오늘을 보내라. 2, 8, 11월생 매사 겸손한 자세로 임하라. 부부는 일심동체다. 배우자를 믿지 못하면 부부 사이는 멀어지는 법이다. 자기 수양에 힘쓰라. 외출을 삼가라.



▶**진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경솔히 여자의 금전을 사용하면 구설에 오르고 가정에 불화가 생길까. 그 돈을 갖지 못하면 더 큰 것을 잃고 후회가 뒤따르게 된다. 앞으로의 실속 있는 삶을 위해 부부가 화합하는 것이 최선임을 알라.



▶**말띠** 나이도 많은데 내 사업도 못하고 남의 일만 한다고 한탄하지 말라. 때가 되면 성취할 수 있다. 자영업은 아직 시기가 아니다. 5, 7, 9월생은 내조가 좋아야 사업도 번창한다는 이치를 알라. 사업도 좋지만, 가족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



▶**양띠** 시작은 좋았으나 부진해지니 자신감마저 잃어간다. 하지만 포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운명 탓으로 돌리지 말고 노력하고 성격을 바꾸라. 1, 5, 7월생은 구상하는 일을 과감하게 추진하라. 대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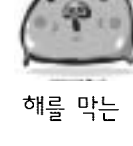
▶**원숭이띠**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한 뒤 후회하는 격이다. 1, 3, 7월생은 아무리 반성해도 한 번 떠난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라. 사업은 확고한 자신감으로 인내하며 전진할 때 장래가 밝다.



▶**닭띠** 서로 사랑하면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사는 것은 힘든 일이다. 두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합칠 때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다. 금전적으로 지름을 힘들고 지쳐도 낙심은 금물이다. 나, 모, 모 성씨 힘내라. 사랑하는 이와 합심한다면 모든 것이 풀린다.



▶**개띠** 직장 상하 관계로 신경이 날카워지고, 앞선 데 달린 격으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겠다. 5, 9, 11월생은 친척하게 처신하고, 인내하라. 기, 자, 보 성씨 등, 북쪽에서 금전 관계가 원활히 이뤄질 듯하다. 현세로 직장하라.



▶**돼지띠** 포부를 너무 크게 갖지 말라. 현 위치를 지키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인정에 끌려 손해 볼 줄 알면서도 결단을 못 내리다 더 큰 손해를 보겠다. 공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손해 막는 길이다. 1, 4, 6월생 먼 길 외출을 삼가라.